

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12】

冬土와 荊棘의 세월

이종률李鍾律이 쓴 김시현과 권애라의 구술 전기에 따르면 1940년 무렵 김시현과 권애라의 행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적되고 있다. 우선 김시현이 동경東京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한 것은 장기長崎형무소에서 가을 9월에 출감한 이듬해 1월이었다. 김시현은 서울에서 부인 권애라와 아들 봉년峯年을 만났다는 것이다. 권애라는 당년 41세(실은 44세)인데 결혼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살림을 살아본 적은 한번도 없고 식사를 같이한 것도 손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서울에 오래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김시현은 부인과 아들을 작별하고 중국 북경北京으로 갔다. 북경에 도착한 김시현은 격동하는 정세에 대한 안목과 대처 방법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1940년은 극동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파쇼세력과 미, 영, 불, 소련蘇聯 등의 연합군 세력이 대결하는 제2차세계대전이 개전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세를 잘 살피면 궁극으로 일본 등의 추축국樞軸國이 연합국을 이기지 못할 것은 예측이 어렵지 않았다. 북경에 도착한 김시현은 이러한 정세에 조응照應하여 ‘최종적이며 총민족 대일항전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혈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의열단에서 양성한 남경비밀군관학교 출신 장병과 임시정부 광복군光復軍 장병과 동만주東滿洲에서 안희제安熙濟, 윤세복尹世復 등이 통솔하는 대한독립군단 장병과 기타 민족진영 독립군이 먼저 결속하고 거기에 지

원병과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가담하고 있는 전조선인 군병을 불러내고, 또 사회주의 진영의 군병도 모두 가담시키며 거기에 해내海內에서 전체 청장년을 동원시키는 일대 항일민족전선을 형성하고, 아울러 하나의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는 정식 대일개전對日開戰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동지규합에 힘썼으나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동족끼리 미국에서 분열주의의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할거주의적 소아사상小我思想에 도취되어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종횡으로 시도하다 벽에 부딪힌 김시현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 지도자급 인물과 만났다. 서울에서 회산晦山 박시목朴時穆을 만나고 부산에서는 소해宵海 장건상張建相을 만났다. 박시목은 백민白民 황상규黃尙奎, 석정石汀 윤세주尹世周와 함께 밀양密陽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열단으로 동경에 밀파되어 있다가 서울에 와 있었으며 장건상은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미주美洲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다가 국내에 잠입하여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와 이때 동래東萊의 온천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다. 김시현은 이 두 사람과 함께 북경으로 갔다. 박시목은 의열단원과 민족주의 세력을 단결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고 장건상은 민족주의 세력은 물론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인사들로부터는 신뢰를 받는 인물이기에 그 영향력을 활용키 위해서였다. 그리고 대구大邱의 윤우열尹又烈, 서울의 방주혁方周燮, 최익환

崔益煥, 평양의 박영덕朴永德 등은 국내에서 소임을 맡아 협응키로 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목적인 바다로 일을 마친 김시현은 북경으로 떠나기 전 ‘이왕 들어온 김에 안부나 알고 가자고 연락하여’ 부인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을 잠시 만나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1941년 4월 중순 어느날이었다고 이종률은 전기에서 적고 있다. 그 부분을 다소 뜻이 통하게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과 아들을 만나게 된 김선생은, 평생에 적어도 한번은 그들을 위해,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할애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행하여 창경원昌慶苑으로 갔다. 식물원植物園 동쪽 소나무 밑에 자리잡고 앉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하구 김선생은, 혁명자의 가슴이기 때문에, 심각한 자정慈情이 스며 있다 할까, 입가에 열은 웃음을 띠며 ‘봉년아, 빵 더 사주냐?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 없니?’ 하고 묻고 또 말머리를 부인에게 돌려 ‘당신은 무엇이 먹고 싶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대답들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해외로 나가면 어찌될지 모른다. 한번도 아버 노릇을 못하고 남편 노릇을 못한 나로서 면목이 없다’라는, 그러나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아버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서울까지 오라 하시고, 오늘 이 창경원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하고 봉년은 질문이라기보다 반박의 어성語聲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냐?’ 하고 반문하

며 하구선생은 봉년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봉년은 무엇인가 생각이 있는 표정으로 잠시 말이 없었다. 옆으로는 벚꽃구경을 나온 남녀들이 지나가고 봄날씨에 하늘은 화창하건만 이 부자와 이 부부 사이에는 무엇인가 무거운 공기가 끼어 있었다. ‘아버지’ 하고 봉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나이도 금년 열아홉입니다. 제겐 빵이나 꽃구경보다 독립투쟁을 할 일터를 주심이 아버님의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러자 어머니 권애라 여사가 나섰다. ‘여보, 이제 봉년이기도 컸군요. 나는 당신을 봉년의 아버지, 또한 나의 남편인 것보다 더 크게 알고 있거니와, 과자나 학용품을 사다 주는 이웃집 아이들의 아버지보다 훌륭한 분인 당신의 아들된 봉년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늘 타 이르며 길러왔소. 이번에 제가 원하기도 하니 해외로 나가실 때 데리고 가 젊은 동지 하나 얻는 셈치고 일을 맡겨봐주시오’ 하였다.

모자의 말을 들은 김선생이 머리를 숙연히 끄덕였다. ‘고맙고 수고했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자식을 길러주어 고맙소’ 하고 김선생은 봉년을 데리고 갈 것을 승낙하며 ‘그럼, 당신은 어찌실라오?’ 하고 부인의 의향을 물었다. 권애라는 ‘저도 가야지요. 제 연령이 마흔둘입니다. 당신을 모스크바에서 만나 2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욕을 참고 비밀을 지키고 장래를 기대하고 하는 것만이 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의 시기도 다가오고 봉년이기도 성년이 되고 하니 나도 이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인 것보다 일이 있는 조국의 딸의 하나로서 일해야 하겠소’ 하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잘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우리 셋이 우선 화북지방華北地方으로 나갑시다. 할일이 너무도 많이 있소. 그래, 어서 집에들 다녀오시오.”

“집에는 무엇 때문에요?” “떠나자면 준비들 할 게 없소?”

“준비는 무슨 준비할 게 있어요. 마음의 준비면 그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자는 집을 나설 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창경원 꽃구경은 중도에 방향을 바꾸고 3인가족은 중국행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하구 김선생과 그 영부인손夫人 권여사와 그 영식令息 봉년 군이 북경의 만수산萬壽山 동산에 올라 만리여정萬里旅情의 산책을 하게 된 것은 창경원 꽃구경 두 달 후인 그해 6월이었다.

위 부분의 글은 이종률이 김시현, 권애라 부부에게서 받은 구술을 재구성하여 세련되지 않은 문장으로 지은 것으로서 착오 또한 없지 않다. 권애라는 평생 김시현을 ‘선생’ 또는 ‘할아버지’로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보, 당신’ 등으로 호칭하고 있고, 김시현은 권애라를 평생 ‘권동지’라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역시 ‘당신’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나이 또한 1941년이라면 권애라는 44세, 김봉년은 1922년생이니 우리나라 이 이때 20세이어야 한다. 또한 김봉년 본인이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상의 약력을 보면, 그는 1939년 3월에 만주국 길림성吉林省의 영신농림고등학교永新農林高等學校를 졸업하고 1940년 6월에는 중국에서 광복군光復軍 제3지대支隊에 가입하였으며 1940년 8월에는 중국의 항일군사정치대학抗日軍事政治大學에 입교해서 이로부터 2년간 군사정치학을 전수專修한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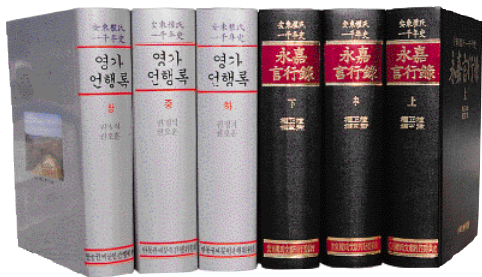
그러니 앞의 이종률의 전기에서 나온 부분의 김시현이 서울에서 부인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을 만나 창경원에서 꽃구경

15면으로 계속

오늘날 貴宅은 家庭教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永嘉言行錄



一舉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 詩文과金石文·狀記文 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장의 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충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權正植·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